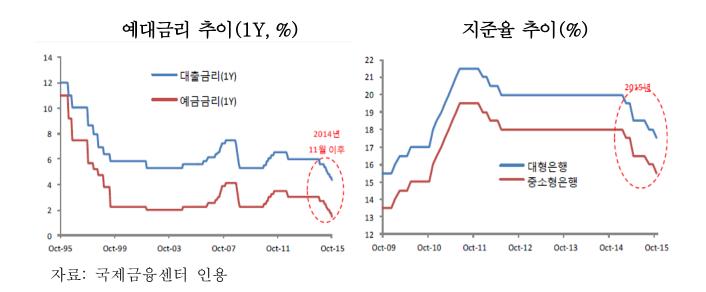
중국 금리인하에 대한 반응

- □ 지난 10월 23일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
 - 은행 대출기준금리를 4.60%→4.35%로, 1년만기 예금금리는
 1.75%→1.50%로 각각 0.25%포인트 인하
 - 은행 지급준비율도 18.0%→17.5%로 인하 <5600억위안(900억 달러) 유동성 공급효과>
 - * 지준율 인하는 위안화의 급속한 절하 방지를 위한 최근 외환시장개 입(달러매각-위안화매입)으로 축소된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 치로 해석



- □ 금번 통화완화 정책은 중국정부의 예상보다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
 - 인민은행은 자본유출 지속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할 소지 (Goldman Sachs, Capital Economics, HSBC)

- 금리인하의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가 6.5%로 설정될 경우 추가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나 7%로 설정할 경우 추가 인하 예상 (Deutsche Bank)
- 한편 인민은행의 통화완화 결정으로 세계경제가 다소 안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Fed는 금년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망 (Bank of Montreal)
- □ 중국 금리인하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 상승
 - (미국) S&P 500: +1.1%, 나스닥: +2.27%
 - (유럽) FTSE Eurofirst 300 (범유럽주가지수): +2.0%
 - (중국) 중국 상하이종합: +1.3%
 - (일본) 닛케이 225: +2.11%
- □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으로 미 달러화는 주 요통화대비 강세
 - 달러/유로 : 1.11→1.10
 - 엔/달러 : 120.69→121.47
 - 위안/달러 : 6.36→6.35

담당: 염지연 대리

Tel. 051) 620-3187